

## 교회소식

: 오늘은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회회가 있습니다.

: 오늘 청파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대상자들은 예배 후 세미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교육부회의가 열립니다.

: 청년부 여름 기행이 18-20일 '민통선 평화 역사 기행'을 주제로 열립니다.

: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약 5:7~11

오늘 식당 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정은선 한선희 유상진 황현성
다음 주 식당봉사 : 유경순 하미림 이유진 이미휘 이은옥 송형운 정재기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식사 / 떡 대접 : 김재홍 최희영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  
의  
소  
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13주】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덤고 답답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새롭고 쾌청한 하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71년 전 누렸던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우리 민족은 긴 세월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낮을 만들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반도를 영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일구어가기 위해, 남과 북이 마음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요15:14,15 ..... 인도자

♣ 교 독 문 ..... 102. 나라 사랑(4)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김인걸 장로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516.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다 함께

♣ 성경봉독 ..... 창 49:8~12 .....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고린도 전서 13장 ..... 찬양대

말 씬 ..... 유다에게 길을 묻다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요한	원은이	곽정자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기성	이은정	김문주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윤수	박상호	김정길	최숙화	김주영	김훈동	김유순
문복순	박기영	박상규	김신연	박상옥	박숙미	박시내	박예림	박재영	이현정
백묘현	서수진	서정순	서해나	성지현	안정숙	안현숙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이동천	이순용	김신실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한림
김명희	임서영	임선양	신현숙	장미경	전영린	김행자	정두리	정진호	양순임
조병무	송양진	주은경	최숙	최윤선	최재욱	이수정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 감사헌금

곽권희	김애경	김애리나	김영호	김영희	김해선	김형근	문복순	박미연	박상한
박선미	정영웅	박숙미	박정숙	박창운	허정윤	이광재	이미정	이범석	류정욱
이부용	이순이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현죽	임광호	장영숙	전진태	최형균
강경화	홍성식	이유리	무명22						

### 녹색꿈헌금

김지현 박순섭 권미숙 이고임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무명6

### 생일감사헌금

오현정 윤정덕 장병준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방학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별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 신경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 양	.....	예수님이 좋아 좋아	.....	1남선교회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거친 가지밭길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호기롭게 희생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굳건히 지켜내십시오.			
다함께:	아멘. 불의한 무리를 두려워하며 숨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을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성심껏 일구며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동 호 회 / 각 동호회별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2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장로	인도자 정현모 집사

8월	1부 영접위원	안현숙 최미자		
	1부 헌금위원	진정숙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최철수 김광일	백혜숙 김애순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이형숙		

믿음으로 읽는 글

## 2016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남과 북/북과 남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광복(해방)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약속을 잊지 않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공동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염원을 받아주시옵소서.

71년 전, 우리나라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광복(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소망했으며, 의로운 피와 땀을 흘리며 인내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만세가 메아리치고, 삼천만 가슴마다 해방의 감격이 용솨음치던 그날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방의 감격도 잠시, 우리 민족의 뜻과 배치되게 강대국에 의한 민족 분열의 고통을 당하며 험하다 험한 길을 거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남과 대화로 화해의 물꼬를 트기도 했고,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꿈을 잉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음의 담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깊은 불신의 강을 건너고, 분노의 아글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지만 이 민족을 바르게 섬기지 못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화해를 도모하기보다 갈등을 부추였습니다. 둘로 나뉜 서로를 같은 동포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아예 사랑할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지금은 멀어질 대로 멀어진 남과 북/ 북과 남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진 가슴이지만 아픈 상처를 꿰매고 서로 위로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남과 북/ 북과 남의 관계를 개선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산산이 흩어진 식구들이 다시 합치게 하옵소서. 남북의 아이들이 한술밥을 먹게 하시고, 북남의 청년들이 한 책상에서 인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민족공존의 발걸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평화공영의 큰 물결이 독도에서 서해로 넘실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조선반도에서 7천만 겨레 누구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더욱 커진 민족의 기상으로 온 세상을 두루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16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